

대학생의 진로지도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김선환, 김미중

한남대학교 화학과,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on Self-esteem, Self-efficacy 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 University Students

Sun-Hwan Kim, Mi-Jong Kim

Dept. of Chemistry, Dep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에게 자기이해를 기초로 하여 직업역량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진로지도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2014년 9~12월, D시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생 12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진로지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SPSS 18.0으로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전에 비해 참여후에 자아존중감은 1.06점 감소하였으며($t=3.39$, $p=.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14.22점 더 상승되었고($t=-12.41$, $p=.00$), 진로개발준비도는 17.36점 상승되었다($t=-13.85$, $p=.00$). 자기이해에 기초하고 직업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탐색하며 취업모의훈련을 포함한 본 진로지도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두 변수에 효과적이었다. 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을 때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간에 상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대학생의 진로지도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할 것과 진로지도와 자아존중감을 설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주제어 : 진로지도 프로그램, 자존감,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on self-esteem, self-efficacy 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 university students. The structured career development program was given in 124 participants, Sep.~Dec, 2014 in D city. SPSS/Win 18.0. was used. The 1.06 points were decreased in self-esteem($t=3.39$, $p=.00$) than before. The 14.22 points, 17.36 points were increased in self-efficacy($t=-12.41$, $p=.00$),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t=-13.85$, $p=.00$) than before. It showed the program was effective. Three variables showed correlation with one another. We suggested this structured career preparation program would be applied and extended more in career development for the college students. And the follow-up studies about self esteem and relating factors will be needed.

Key Words : Career preparation program, Self-esteem, Self-efficacy,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College students

* 본 논문은 2014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as supported by the Hannam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4.)

Received 2 March 2016, Revised 28 March 2016

Accepted 20 April 2016, Published 28 April 2016

Corresponding Author: Mijong Kim(Hannam University)

Email: mijong@hnu.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초기 성인기로서 대학생의 시기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그에 다른 직업세계의 변화 그리고 최근 어려워진 취업시장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에 대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1,2,3]. 이러한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대학생들은 진로와 관련된 많은 부담을 경험하게 됨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다[2,3,4,5].

졸업 후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고, 진로와 관련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가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4,5], 자신이 계획한 직업과 진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진로결정과의 관계가 있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진로효능감, 셀프리더십 등이 진로결정과 관련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4,5,6,7,8], 특히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주관적 평가이며,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8,12]. 자아존중감은 삶의 사건들을 직면해 방향을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진로결정과 같은 선택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도 역시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고하고 있다[1,4,13].

Bandura[15]에 따르면 자아효능감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에 대해 자신이 영향을 발휘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사람을 동기화시키고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성취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였다. 또 자기효능감이란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적, 구체적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16,17].

특히 진로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 및 가치관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더라는 믿음, 또는 진로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여러 문제

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 준비도라고 할 수 있다[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특정 진로에 대한 결정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다[14,18].

진로에 대한 준비된 정도를 나타내는 진로개발준비도는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지적, 정서적 특성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며, 전 생애에 걸쳐 수행되는 진로개발 과정 안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 선택하여 그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 사항들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상태이다[19].

진로개발준비도의 도구를 개발한 임언과 윤형환[20]에 의하면 진로개발준비도는 한 개인이 진로개발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이며, 자신의 흥미, 적성 및 가치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 직업 및 전공에 대한 지식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정도,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 정도, 진로결정 및 준비의 과정에서의 관계활용의 자신감 정도, 그리고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구직 기술 및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6,20].

진로개발준비도에 대학생의 일반적 변수중 성별, 학년, 진로외식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강희순[21]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개발 준비도는 남자 대학생이, 1, 4학년이 타 학년 보다 더 높았음을 보고하였으며 각 변수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취업전략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진로탐색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탐색’,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또는 진로 및 취업 관련 준비행동 측면에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구직 기술’의 내용이다[22,23,24,25,26].

송지은[25]은 한 학기동안 취업을 앞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취업의 동향부터 기업탐색, 면접특강 등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포함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도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최영임[24]은 코칭개념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적용한 프로그램이 역기능적 진로성숙도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진로지도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직업세계나 취업에 관련된 주제만을 다루기보다는 자기이해 또는 자기분석을 포함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프로그램 개발에 그치지나[23], 특별한 재능을 가진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다루는 연구[27], 또는 대상자의 수가 한 그룹당 10명 전후인 경우가 많았다[28,29,30]. 따라서 자기이해를 포함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충분한 수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효과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이해에 기초하고 직업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탐색하는 구조화된 진로지도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대학생의 진로지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진로지도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2) 진로지도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 점수를 확인하고 그 점수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하부영역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진로개발준비도의 하부영역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 6)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개발 준비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1.3 용어정의

1.3.1 진로지도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란 대학생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파악하도록 도와주도록 교육함으로써 자신이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계획을 세우며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진로지도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직업의 의미와 가치’, ‘직업에 필요한 역량’, ‘나에 대한 이해’, ‘직업과 직무적성’, ‘기업의 소개와 경력관리’, ‘나의 역량 알아보기’, ‘나의 역량보완하기’,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이력서 클리닉’,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요령’, ‘모의면접 및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 매주 100분씩 14회 진행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Table 1>.

<Table 1> Design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section	contents	treatment
		pretest
1	meaning and value of job	
2	what competence needed in taking job	
3	career development	
4	matching aptitude to job	
5	understanding myself	
6	exploring my competence	
7	improving my competence	structured, standardized career program
8	resume and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9	evaluation of individual resume	
10	evaluation of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11	interview skill	
12	simulated job interview	
13	evaluation of simulated job interview	
14	program summary and cheer-up	
		posttest

1.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주관적 평가이며,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한다[1,8,9,10,11].

1.3.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Hackett & Betz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하며, 개인의 특정 진로에 대한 결정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개인적인 신념이다[22,32,3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은 총 5가지인데 첫째, 직업정보 수집 요인은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

하는 것이다. 둘째, 목표설정 요인은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자신감 있고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셋째, 계획수립 요인은 진학과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넷째, 문제해결 요인은 진로상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가 헤쳐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평가 요인은 자신의 능력, 가치, 욕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1.3.4 진로개발준비도

진로개발 준비도는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20].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한 단일그룹 사전사후 설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4년 9-12월, D광역시에 위치한 H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를 구하기 위하여 단일 그룹 사전사후 평균 값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표본크기는 G 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3, 검정력 0.95의 수준에서 총122명이 계산되었고 10% 탈락율을 예상하여 135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에 포기한 대상자는 없었으며, 사전사후 조사에서 불성실하거나 짝이 맞지 않은 11부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12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를 동의한 경우 서면으로 서명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2]가 개발한 'Self - Esteem Questionnaire'를 전병제[8]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최승혜와 이해정[31]이 재인용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긍정적인 5문항과 부정적인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승혜와 이해정[31]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는 .82이었다.

2.3.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 Taylor와 Betz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 : CDMSES)의 50문항을 1996년 Betz, Klein과 Talyor[28]가 재구성한 단축형 CDMSESSF(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 Short Form)도구를 이기학과 이학주[35]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 5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25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는 .95로 측정되었다.

2.3.3 진로개발준비도

본 연구에서 진로개발준비도는 임언과 윤희한[20]이 제작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이해, 전공 및 직업 지식, 진로결정확신도, 의사결정효능감, 관계활용효능감, 구직기술의 6개 하위 요소에 대한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개발에 대해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다. 송지은[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는 .96으로 측정되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적, 취업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전후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의 차이는 paired t-test 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사후분석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과 같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4)

Characteristics (Mean ± SD)	Categories	Number(%)
Age(yr) (22.8±2.07)	25≤	21(16.9)
	22-24	73(58.9)
	21≥	30(24.2)
Gender	Male	69(55.6)
	Female	55(44.4)
Grade	Sophomore	17(13.7)
	Junior	31(25.0)
	Senior	76(61.3)
Majors	Humanities	24(19.4)
	Engineering	35(28.2)
	Social Sciences	25(20.2)
	Natural science	32(25.8)
	Others	8(6.5)
Taking career class	Yes	97(78.2)
	No	27(21.8)
Getting job	Yes	11(8.9)
	No	113(91.1)
Academic Score	4.0≤	8(6.5)
	3.5-3.9	37(29.8)
	3.0-3.4	51(41.1)
	2.5-2.9	23(18.5)
	2.4≥	5(4.0)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8세였으며, 22-24세가 73명, 58.9%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성이 69명(55.6%)으로 여성(55명, 44.4%)보다 많았으며, 4학년 학생들이 76명(61.3%)으로 많았고 그 다음은 3학년(31명, 25.0%), 2학년(17명, 13.7%)의 순이었다. 대상자들은 공학전공자가 35명으로 28.2%이고,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전공, 기타(교육학, 예술)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78.2%(97명)는 취업관련 교육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하

였으며 11명(8.9%)는 취업이 확정되었다고 하였다. 대상자들의 성적은 3.0-3.4점 구간에 51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5-3.9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3.2 프로그램 전후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의 차이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수의 프로그램 전후 차이를 paired t-test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프로그램 참여 전 29.6±4.69점보다 참여 후 28.5±2.48점으로 1.06점 감소하였다(t=3.39, p=.00).

(Table 3) comparison between pretest score and posttest score of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 all subjectives (n=124)

Variables	Items	M±SD	t-value	p-value
self-esteem	pre-test	29.6(4.69)	3.39	.001
	post-test	28.5(2.48)		
	gap between pre-post test	-1.06		
self-efficacy	pre-test	81.8(14.9)	-12.41	.000
	post-test	96.1(14.2)		
	gap between pre-post test	14.22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pre-test	115.0(19.1)	-13.85	.000
	post-test	132.3(21.5)		
	gap between pre-post test	17.36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프로그램 참여전 81.8±14.9점보다 참여 후 96.1±14.2점으로 14.22점 상승되었으며 (t=-12.41, p=.00), 진로개발준비도 프로그램 참여 전 115.0±19.1점보다 참여 후 132.3±21.5점으로 17.36점 상승되었다(t=-13.85, p=.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의 차이

대상자의 진로프로그램 참여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4)

Charac- teristics	Categories	SE	SEF	RE
		mean(SD)	mean(SD)	mean(SD)
		t or F (p value)	t or F (p value)	t or F (p value)
Age(yr)	25≤	31.4(3.51)	83.4(10.28)	112.6(17.17)
	22-24	29.6(4.65)	81.3(15.75)	114.6(19.75)
	21≥	28.3(5.20)	82.1(15.61)	117.6(19.18)
		2.84(.62)	.16(.84)	.45(.63)
Gender	Male	30.6(4.37)	82.2(15.22)	116.3(20.39)
	Female	28.4(4.84)	81.4(14.64)	113.3(17.44)
		2.59(.01)	.26(.79)	.87(.38)
Grade	Sophomore	27.2(6.08)	82.7(14.42)	118.4(19.54)
	Junior	30.6(3.93)	85.0(16.64)	123.7(18.55)
	Senior	29.7(4.50)	80.4(14.25)	110.6(18.09)
		3.07(.05)	1.084(.34)	5.93(.00*)
Majors	Humanities	28.2(6.03)	78.2(13.95)	111.9(17.50)
	Engineering	30.0(4.83)	81.6(15.96)	113.7(22.43)
	Social Scie	29.7(3.62)	83.0(12.91)	113.4(16.07)
	Natural Scie	29.9(4.35)	82.9(15.59)	118.4(18.41)
	Others	30.7(3.95)	86.1(17.4)	120.6(21.24)
		.76(.54)	.59(.66)	.66(.62)
Taking career class	Yes	29.81(4.44)	82.9(17.42)	115.1(21.13)
	No	29.07(5.56)	81.5(14.22)	114.9(18.65)
		.72(.47)	-.42(.67)	-.05(.95)
getting job	Yes	30.0(4.54)	89.0(8.43)	117.9(16.47)
	No	29.6(4.72)	81.1(15.24)	114.7(19.40)
		.17(.67)	4.9(.02)	.45(.50)
Acade- mic Score	4.0≤	29.5(5.18)	89.2(15.16)	121.1(16.71)
	3.5-3.9	29.6(4.59)	83.0(13.65)	117.3(18.33)
	3.0-3.4	29.5(4.80)	78.4(15.12)	112.5(18.98)
	2.5-2.9	29.8(4.47)	85.6(15.58)	115.6(21.86)
	2.4≥	29.8(6.34)	79.2(14.04)	109.2(18.80)
		.94(.98)	1.68(.15)	.66(.61)

SE: self-esteem, SEF: self-efficacy,
RE: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 Scheffe test : b > c

자아존중감은 남학생(30.6±4.37점)이 여학생(28.4±4.84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밖에 25세 이상, 3학년 그룹, 기타(교육학, 예술전공 등)과 공학계열 전공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취업이 확정된 학생그룹에서 월등히 높은 수준의 자아효능감을 보였다(t=4.9, p=.02). 그밖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25세 이상, 남학생, 3학년 학생, 사회과학 전공자에서 타 그룹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개발준비도는 3학년에서 123.7±18.5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

다(F=5.93, p=.00). 4학년의 진로개발 준비도는 110.6±18.09점으로 2학년의 점수인 118.4±19.5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5세 이상의 그룹은 타 연령군에 비해 자신이 진로개발을 위해 덜 준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취업이 확정된 그룹, 남학생그룹에서, 전공이 기타(교직이나 예술 등)인 경우 타 전공자에 비해 자신의 진로개발 준비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취업에 관련된 강좌를 들었거나 취업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학점이 4.0이상인 경우 자신의 진로개발에 준비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3.4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부영역의 차이

진로프로그램 참여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부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Comparison of subdomains in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4)

Charac- teris- tics	Cate- gories	SEF1	SEF2	SEF3	SEF4	SEF5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t/p value	t/p value	t/p value	t/p value	t/p value
Taking career class	Yes	16.4(3.09)	16.9(3.14)	15.8(3.36)	16.1(3.23)	16.2(3.07)
	No	16.3(3.24)	16.8(3.71)	16.31(3.67)	16.3(3.79)	17.0(4.23)
		1.1(.85)	0.07(.93)	-0.66(.50)	-0.28(.77)	-1.17(.24)
Get- ting job	Yes	17.5(1.86)	18.1(2.52)	17.3(2.06)	17.6(2.54)	18.3(2.06)
	No	16.3(3.19)	16.7(3.30)	15.81(3.4)	16.0(3.39)	16.2(3.4)
		1.20(.23)	1.37(.17)	1.47(.14)	1.52(.12)	2.05(.04*)

SEF1: collecting data, SEF2: establishing goal, SEF3: planning,
SEF4: solving problems, SEF5: self-evaluation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5가지 하부영역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의 차이를 보이는 지를 분석하였다. 차이를 나타낸 변수로는 취업이 결정된 경우에 하부영역 중 자기평가영역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t=2.05, p=.04). 나이, 성별, 학년, 전공, 취업관련 특강이나 과목 수강 경험, 성적 등의 변수들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부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5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진로개발준비도의 하부영역의 차이

진로프로그램 참여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개발준비도의 하부영역 분석은 <Table 6>와 같다.

<Table 6> Comparison of subdomains in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4)

Characteristics	READ					
	READ1	READ2	READ3	READ4	READ5	READ6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t/p value	t/p value	t/p value	t/p value	t/p value	t/p value
Gender	Male 17.3(3.83)	23.2(4.60)	16.9(3.64)	20.5(4.77)	20.1(3.90)	18.0(4.58)
	Female 17.3(3.17)	22.8(3.86)	16.6(3.73)	20.0(3.94)	20.0(4.50)	16.2(4.33)
	-.07(.94)	.49(.62)	.45(.64)	.61(.54)	.11(.90)	2.2(.02)*
Grade	Soph. 17.8(3.19)	23.1(4.11)	17.0(3.41)	20.2(5.33)	21.1(3.71)	18.8(4.10)
	Jun. 18.9(3.34)	24.8(4.70)	18.6(3.39)	20.7(4.31)	21.5(3.90)	19.0(4.59)
	Sen. 16.6(3.53)	22.3(3.96)	16.0(3.60)	20.1(4.29)	19.3(4.19)	16.1(4.32)
	-.07(.94)	.49(.62)	.45(.64)	.61(.54)	.11(.90)	2.2(.02)*
Taking career class before	Yes 17.2(3.63)	23.0(4.10)	16.8(3.68)	20.3(4.12)	20.2(0.09)	17.3(4.45)
	No 17.9(3.23)	23.2(4.94)	16.8(3.71)	20.4(5.43)	19.6(4.44)	17.1(4.94)
	-.85(.39)	-.23(.81)	-.01(.98)	-.12(.89)	.63(.52)	.19(.84)

READ1: understanding oneself, READ2: knowing about jobs, READ3: convincing decisions, READ4: efficacy of decision-making, READ5: efficacy of using networking, READ6: skill of job hunting
** Scheffe test : b > c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진로개발 준비도의 6개의 하부 영역인 자기이해, 전공 및 직업지식, 진로결정확신도, 의사결정효능감, 관계활용효능감, 구직기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구직기술에 있어서 성별(t=2.2, p=.02)과 학년(F=2.2, p=.02)이 차이를 보였다. 이전에 진로관련 강의를 들은 경험 등의 변수는 진로개발준비도의 각 하부영역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6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수인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의 상관관계는 <Table 7>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48, p<.00), 진로개발준비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51, p<.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준비도도 마찬가지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74, p<.00)

<Table 7>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n=124)

Variables	SE	SEF	RE
SE			
SEF	.48(.00)		
RE	.51(.00)	.74(.00)	

SE: self-esteem, SEF: self-efficacy, RE: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관련요인을 탐색하여 효과적인 진로지도 전략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프로그램 참여전 연구변인의 수준을 다른 선행연구의 수준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사전조사시 40점만점에 29.6점 수준으로(4점만점으로 환산하면 2.9점) 이는 김현정과 손정락[36]이 비수도권에 재학중인 44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아존중감 점수 2.9점과 같은 수준이고, 이선영[37]이 서울경기 지역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04 점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에서 125점만점에 81.8점(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27점)을 나타냈고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수도권 7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윤정혜[38]의 3.52점보다는 낮으며, 간호학생을 보고한 3.03점[4]보다 약간 낮고,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송지은[25]의 연구에서 각기 다른 두 그룹에서 2.5점 2.37점을 보고한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범주 내에서 속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참여자의 진로개발준비도는 175만점에 115점(5점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28점)으로 이는 4년제와 전문대생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강은영[5]의 연구에서 3.30점으로 보고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이해를 포함한 구조화된 진로지도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 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15.9점 상승되었으며(t=-10.43, p=.00), 진로개발준비도는 21.5점 상승되어(t=-9.21, p=.00), 본 연

구에서 중재로 제공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준비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생각해 볼 것은 이와는 반대로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은 프로그램 참여 전 29.7점에서 참여 후 28.4점으로 1.3점 낮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다($t=3.64, p=.00$)는 점이다. 이는 Cai, Zijun[39]등이 보고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진로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는 결과와 부합하지 않으며,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과 상관관계가 있고[37], 자아존중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변수이며[13], 취업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것[1,4]과 상충되는 것이다.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어 왔던 자아존중감이 진로지도 프로그램 제공이후 수준이 낮아진 것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해 볼 것은 우선 자아존중감은 자기자신을 능력있고 의미있고 성공적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진로지도과정에서 대상자 자신의 역량에 대한 분석과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수준에 자신의 역량이 미치지 못함을 파악하고 자존감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 맞추어지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역량탐색을 통해 참여 대상자들은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인지하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마칠 때는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회복되어 증진되고 진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실습 등을 거쳐 준비되어 집에 따라 진로개발 준비도는 개선되어 프로그램 참여전보다 증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자아존중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진로개발 준비도처럼 진로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받으면 쉽게 증진되는 것이 아닌 심리적 변인이 아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도구의 타당도에 관한 문제이다. 이자영 등[41]은 우리나라에서 자아존중감 측정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RSS(Rosenberg' Self-Esteem Scale)에 대한 문항수준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변역상의 오류로 인해 자아존중감 척도 중 8번 문항은 자아존중감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항으로 판명하였으며 8번 문항을 제외하면 단일

요인이므로 도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점수가 의도치 않게 반대의 결과로 낮게 나온 것에 대해 도구의 문제점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참여자의 자기성찰이나 도구의 문제 무엇이든 간에 향후에는 프로그램 적용시 구조화된 자아존중감 증진전략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수정 보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진로프로그램 참여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성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확정 여부, 진로개발준비도는 학년의 변수가 차이를 나타낸 변수였으므로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남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은 30.6점으로 여학생 28.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2.59, p=.01$). 56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백옥경[41]이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전소연[13]이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분리하여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경우 남자 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이미경[42]은 남녀대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최보가와 전귀연에 의해 개발된 32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을 분석하여 성별에 다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므로 대학생 집단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다양한 도구로 반복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적용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취업이 확정된 그룹의 경우 타 그룹에 비해 7.9점이나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9, p=.0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부영역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5개영역을 분석해보았을 때 다른 하부영역은 차이가 없었고 자기평가영역에 있어서 취업이 확정된 그룹의 점수가 18.3점으로 12.1점이상 높게 나타났다($t=2.05, p=.04$).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취업이 확정된 그룹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취업이 확정된 그룹은 자아존중감이나 진로개발준비도에서는 타그룹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단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의 영역만이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부영역 중 자기평가요인이 높았던 이유로 자기평가 요인은 자신의 능력, 가치, 욕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33]이므로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끝에 취업이 결정된 대상자들은 자기평가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지은[2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 취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향상되었으며 중재프로그램을 받았던 그룹에서 가장 민감하게 중재효과를 보였던 하부영역이 바로 자기평가가 영역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3학년 학생들이 4학년보다도 진로개발준비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학년의 진로개발 준비도가 2, 3, 4학년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진로개발 준비도를 개발한 임연과 윤형한[20]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개발준비도가 점수가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이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강희순[21]도 광주지역 26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년에 따른 진로개발 준비도는 1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을 볼 때, 진로개발 준비도에 대한 대학생 스스로의 주관적 평가는 학년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추후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2학년들은 118점에서 129점으로 상승하였고($t=-2.46, p=.02$), 3학년들은 123점에서 136점으로 상승하였고($t=-3.58, p=.00$), 4학년들은 110점에서 131점으로 큰 상승을 보였던 점($t=-9.21, p=.00$)을 볼 때, 본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졸업을 앞둔 4학년은 물론 2, 3학년에서 제공되더라도 학생들의 진로개발준비도 상승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43,44].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중 주목해야할 것은 이전에 취업관련 특강이나 강좌를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 본 연구의 3가지 종속변수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상자의 취업관련 강좌에 대한 자세한 구성은 알 수 없으나 취업강좌나 특강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 적용이전 학생들이 참여했던 취업관련 특강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하며, 점점 및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직업의 이해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에 필요한 자신의 역량보완에 대한 동기화, 그리고 구체적인 구직기술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요령과 면접의 구체적인 기술을 포함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참여한 대학생에게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고 진로에 대한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진로개발 준비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진로지도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12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주요 3개변수를 사전조사한 후에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구성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매주 100분씩 14회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적용을 마친 후 3개의 변수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전후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를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aired t-test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제공 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는 증가하였다. 다만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프로그램 제공후 전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 프로그램 중 진로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필요한 역량이 많이 차이가 있음을 주관적으로 자각한 이유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향후 프로그램에서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면서도 프로그램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진로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세 연구변수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조군을 두지 않고 단일그룹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성숙의 효과 등 외생변수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구결과

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진로개발준비도가 학년에 상관없이 2, 3, 4학년 모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향후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고학년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2학년에서도 적용할 것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증진전략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대조군을 두어 외생변수를 통제할 연구가 진행될 것을 제안한다.

ACKNOWLEDGMENTS

This was supported by the Hannam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4.

REFERENCES

- [1] K. S. Shin & I. J. Cho, "The Effects of Job-seeking Skill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Job-seeking Stress in College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9, No. 3, pp. 143-160, 2013.
- [2] E. Y. You, Y. J. Yang, "A Study on the Difference among College Students'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nd the Influence on Career Str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2, pp. 557-568, 2013.
- [3] J. Y. Yoo, "Study on the Money-relating Frustration among Local College Students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 pp. 43-52, 2016.
- [4] H. O. Kim, Y. J. Koo., E. N. Park, "The influence on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by their perceived stress, stress coping, perfectionism, and self este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257-266, 2015.
- [5] H. S. Park, H. S. Bae, S. Y. Jung,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1, No. 4, pp. 621-631, 2002.
- [6] E. Y. Kang,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Master's thesis, Seoul : Ewha University, 2013.
- [7] D. W. Kim, "A Study on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rait,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Search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20, No. 3, pp. 607-625, 2013.
- [8] B. J. Ju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 11, pp. 109-129, 1974.
- [9] H. G. Baek, "Relationship among Participation Motivation, Self-efficacy, Self-respect & Ceaseless Participation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in Mind Growth Progr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7, pp. 59-67, 2012.
- [10] M. G. Jun, M. S. Kim,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 Differentiation, Self Esteem, Life Stress in Nursing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4, pp. 293-302, 2013.
- [11] M. H. Nam, H. O. K. Kim, "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 pp. 263-273, 2016.
- [12]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3] S. Y. Jun, "Effect of self esteem parents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Matur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Chonan : Hoseo University, 2015.
- [14] J. Y. Lee. et al.,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1, No. 1, pp. 173-189, 2009.
- [15] A. Bandura, "Self-Efficacy", *The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John Wiley & Sons, Inc., 2010. DOI: 10.1002/9780470479216.corpsy0836
- [16] H.Y. Jung, H. S. Kang, & J. S. Kim. "Employment Preparation, Work Value,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No. 22, pp. 71-88, 2011.
- [17] N. R. Han, & J. Y. Jeon, “A Research on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making: A case of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office administration”, *Journal of Secretarial Sciences*, Vol. 21, No. 2, pp. 83-99, 2012.
- [18] A. R. Lee, & J. Y. Lee, “The Difference in Career Decision According to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6, No. 1, pp. 221-241, 2015.
- [19] G. W. Choi, “The Effects of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on Job Satisfaction in the College Graduates”, Master’s thesis, Seoul : Korea University, 2013.
- [20] E. Lim, & H. H. Youn, “Development of the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ventor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18, No. 1, pp. 116-132, 2005.
- [21] H. S. Kang, “The Influences of College Students’ Sex, Grade, and Career Consciousness on Career Development Preparation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Vol. 9, No. 3, pp. 83-104, 2010.
- [22] Y. K. Cho,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 Kyungbuk University, 2014.
- [23] H. T. Kim, & B. S. Jun, “A Design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s o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2, No. 2, pp. 59-80, 2005.
- [24] Y. I. Choi, J. S. Im, & K. H. Kim, “The Effect of Coaching on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32, No. 2, pp. 429-454, 2013.
- [25] J. E. Song, “Effect Analysi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Job Placement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 Gaynggi University, 2013.
- [26] J. Y. Kim, Y. S. Lee, D. W. Kim, “The effectiveness of Career Searching programs delivered as part of university curriculum”, *Humanities Non Chong*, Vol. 28, pp. 399-421. 2012.
- [27] E. J. Lee, “Effects of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 Yonsei University, 2001.
- [28] H. S. Kim, “The development and the effects on the career counselling program for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5, No. 4, pp. 139-155, 2001.
- [29] J. S. Jang, “Development of a Career Decision Counseling Program and its Effects o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Iksan : Wonkwang University, 2007.
- [30] S. J. Kim, “Development of the Career Identity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 Kyungbuk University, 2013.
- [31] S. H. Choi, & H. J. Lee, “Affecting Factors in Un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Focused on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2, pp. 808-816, 2013
- [32] G. Hackett, & N. E. Betz, “Self-efficacy and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in Self-efficacy, adaptation, and adjustment”, Springer, pp. 249-280, 1995.
- [33] H. J. So, “The Effect of Cinematherapy with Enneagram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Adolescents”, *The Korean Society for Enneagram*, Vol. 11, No. 1, pp. 45-70, 2014.
- [34] N. E. Betz, K. L. Klein, & K.M. Taylor,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4, No. 1, pp. 47-58, 1996.
- [35] G. H. Lee, & H. J. Lee. “Effects of Career Self -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2, No. 1, pp. 127-136, 2000.
- [36] H. J. Kim, & C. N. S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Depression, Subjective

- Well-Be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1, No. 2, pp. 345-361, 2006.
- [37] S. Y. Lee,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self esteem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the undergraduate”, Master’s thesis, Seoul : Seoul Women’s University, 2004.
- [38] J. H. Youn,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Employabil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5, No. 2, pp. 29-46, 2015.
- [39] Cai, Z., et al., “Self-esteem and proactive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future work self and career adaptability: An examination of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86, pp. 86-94, 2015.
- [40] J. Y. Lee, et al.,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1, No. 1, pp. 173-189, 2009.
- [41] O. K. Baek, “The Effect of Undergraduates’ Separation-Individuation and Self-esteem on Indecision”, Master’s thesis, Seoul : Kookmin University, 2010.
- [42] M. K. Lee,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self-esteem i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Wonju : Sangi University, 2009.
- [43] So-Yeon Park, Kyoung-Young Park, “Correlation Study of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and Self-esteem For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55-261, 2015.
- [44] Sung-Uk Yoon, Youn-Suk Kwon,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self-esteem in partial health related department convergenc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91-98, 2015.

김 선 환(Kim, Sun Hwan)



- 1978년 2월 : 연세대학교 화학과(이학사)
- 1980년 2월 : 연세대학교 화학과(이학석사)
- 1991년 8월 : 연세대학교 화학과(이학박사)
- 1980년 2월 ~ 2012년 2월 : (주)한화종합연구소
- 2012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화학과 재직 (부교수)/ 취업지원팀 자문교수
- 관심분야 : 고에너지물질 합성, 진로지도 및 취업교육
- E-Mail : shkim@hnu.kr

김 미 종(Kim, Mi Jong)



- 1989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95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재직 (부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간호, 간호교육
- E-Mail : mijong@hnu.kr